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담당 : 김주호 정책기획팀장 010-4706-7097)
제 목 [보도자료] ‘천만의연결’을 통해 본 광장 시민들의 요구는"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였다.
날 짜 2025-05-27 (총 3 쪽)

보 도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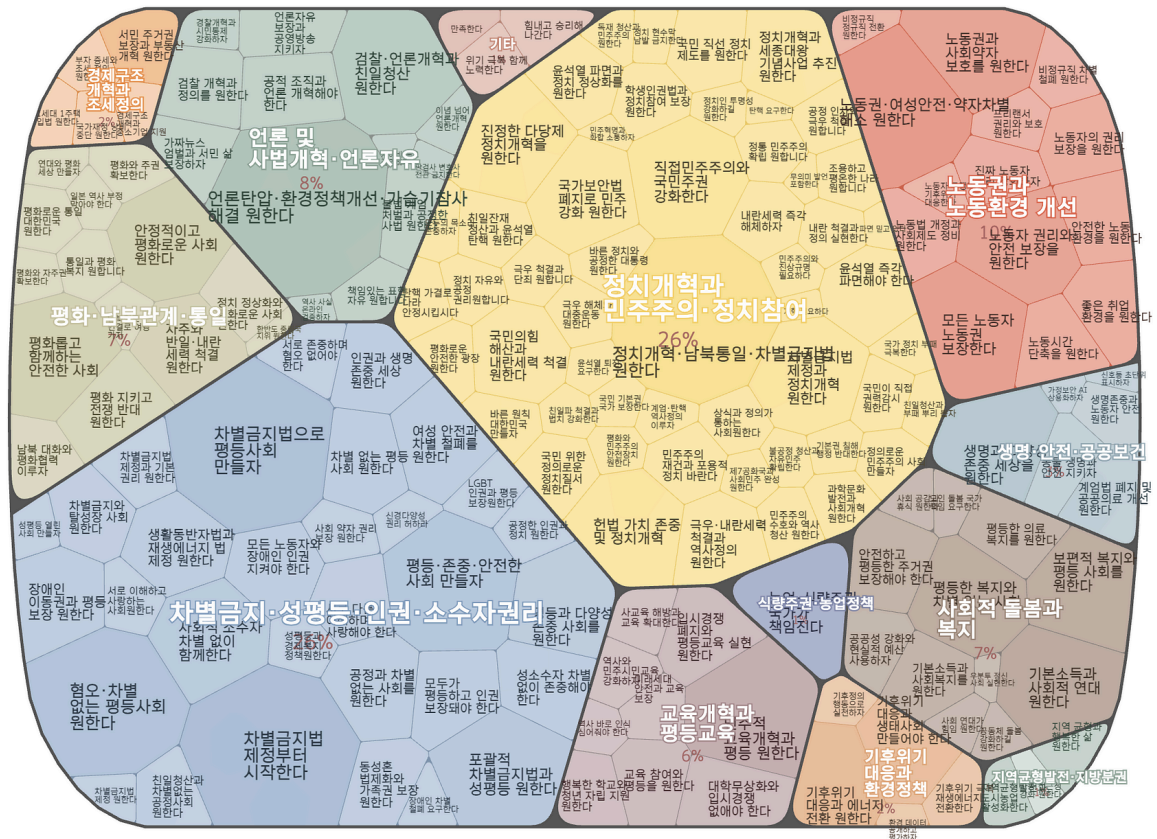
‘천만의연결’을 통해 본 광장 시민들의 요구는"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25.9%)"였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정치참여(25.8%)’가 근소한 차이로 2번째
2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788건의 시민제안 분석결과
그러나 ‘차별금지’와 ‘정치개혁’은 후퇴, 선거 일주일 전에야 공약집 내놔

※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4월 8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주일을 앞둔
오늘(5/27) 온라인공론장 ‘천만의연결’을 통해 ‘윤석열 퇴진 이후 시민들이 만들어갈 세상’을
주제로 광장 시민들이 남겨주신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권리(25.9%)’가 뽑혔고,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정치참여(25.8%)’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권과 노동환경 개선 (10%), 언론개혁과 표현의 자유 (8%), 평화·남북관계·통일 (7.2%),
사회적 돌봄과 복지 (6.4%), 교육개혁과 평등교육 (5.6%), 생명·안전·공공보건(3%),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정책(0.9%)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석결과 링크](#))
2.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 뿐만 아니라 생계 등의
이유로 광장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이 집과 동네, 직장에서도 광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10일 온라인 공론장 ‘천만의연결’([링크](#))을 개설하고 5월 15일까지 약 3개월 간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과 ‘사회대개혁 정책제안’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총 788건의

시민제안(우리가 만들 세상 586건, 사회대개혁 과제 202건¹)을 받아 비상행동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가 정리·발표한 ‘12개 분야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링크)에 반영하였고, ‘천만의연결’을 통해 788건의 분석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림1] 2025년 2월 10일 ~ 2025년 5월 15일까지 '천만의연결'을 통해 제안된 시민의견 788건(우리가 만들 세상 586건, 사회대개혁 과제 202건) 분석결과 (원본은 ['천만의연결' 홈페이지](#) 참조)

-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25.9%)**"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별을 막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 제도적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어 모두의 가족과 돌봄이 인정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비인간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고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습니다.
- 다음으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짜 민주공화국(25.8%)**"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정치 시스템을 원했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¹ 수치에 오류가 있어 ‘우리가 만들 세상 588건 → 586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경유착, 권력기관의 남용을 근절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 구조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등 보다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파면하고, 국민이 직접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인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모두가 존엄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와 같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5. 이외에도 "노동자의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 "동일한 일을 하면 차별 없이 공정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이상 노조를 악마화하지 않는 세상."과 같은 **"일하다 죽지 않고, 누구나 존중받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세상(10%)**", "검찰청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누고, 언론 사주의 편파 보도는 막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지켜야 하지만, 혐오와 거짓은 멈춰야 합니다."와 같은 **"공정한 언론, 진실한 보도, 시민의 표현 자유를 위한 사회(8%)"**,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만나는 것이 당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고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와 같은 **"전쟁과 증오가 아닌 대화와 공존으로, 평화로운 한반도(7.2%)"**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6. 그러나 광장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대선과정에서 ‘차별금지’와 ‘시민주권’을 위한 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갖은 왜곡발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차별과 혐오,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21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들은 이제야 슬슬 공약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상행동은 남은 대선기간동안 광장을 통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118개 사회대개혁 과제를 더욱 공론화하고, 각 후보와 차기 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천만의연결 분석결과 [[원문보기](#)/[다운로드](#)]